



1, 2 추암 일출 명소 정자 능파대·춧대바위 3 무릉계곡 '무릉 달빛 호암소길' 4 도재비골 스카이밸리 5 동해항

# “동해시 여행은 힘찬 응원입니다” 산불피해 동해시 “관광도 소중한 기부”...적극적 관광 마케팅

“동해시로 여행은 힘찬 응원입니다. 관광도 최대의 자원봉사입니다.” 강원 동해시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많은 산불 피해가 있었지만 동해 관광지는 온전합니다”라는 내용을 올리며 관광 홍보를 하고 있다. 지난해 도재비골 스카이밸리, 무릉별유천지 등 새로운 관광지 개발로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던 동해시가 이번 산불로 인해 관광객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월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로 번지면서 시 전체 산림의 약 20%에 달하는 2천700여ha가 피해를 봤고 건축물 180여 채가 소실됐다. 다행히 화마는 도재비골 스카이밸리, 무릉별유천지, 무릉계곡 등 주요 관광지는 모두 비껴갔지만, 산불로 인해 동해시 방문 관광객 수가 급감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산불 피해가 지역 경제에 직접적 피해로 이어지

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재비골 스카이밸리를 비롯해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망상오 토캠핑 리조트, 무릉별유천지 같은 관광지가 대부분 건재하다는 점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통해 산불피해 지역의 2차 피해를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시는 우선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강원 가치여행 캠페인 및 코레일 KTX 행복 기부 여행 마케팅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전국 지자체 및 여행사에 동해시 여행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지역 경기 침체라는 2차 피해로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산불피해를 본 동해시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 동해시를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너에게 감동해

하늘에, 바람에, 그리고 동해시에 감동해!

## 동쪽 하늘에, 동쪽 바다에, 그리고 동쪽 도시 동해시에!

도시의 분주한 일상은 잠시 뒤로 하고 여유와 힐링을 찾아 떠난 당신  
여기, 동쪽 도시 동해시의 하늘과 바다와 바람을 느끼며 그 평안과 너그러움에  
일상의 여유를 얻어가며 기쁘게 감동합니다.

